

2016년도 INTERSTENO CONGRESS & IPRS 참가 보고



□ 기 간 : 2016. 10. 5 - 10. 9

□ 장 소 : Croatia Zagreb

□ 한국대표단 : 이순영(대한속기협회 이사장)

오경애(대한속기협회 총무이사)

이경숙(대한속기협회 회원)

□ 참가국 및 참가 인원

-17개국 65인 참가(Austria, Belgium, China, Croatia, Czech Republic, Finland, France, Germany, Hungary, Italy, Poland, South Korea, Switzerland, The Netherlands, Turkey, United Kingdom, USA)

□ 참가 목적

- 각국 의회의 속기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교류
- 각국 의회의 회의록 발간체계 및 회의록 활용 현황 파악
- 기록문화와 속기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발전방안 강구
- 각 국가의 기록수단 변화에 대한 현황 파악

□ 일 정

날 짜	시 간	일 정
10월 5일 (수)	전일	Arrival of all participants
	14:00	Board meeting
	20:00	Welcome dinner
10월 6일 (목)	9:00	Council meeting1
	12:00	Lunch
	13:30-16:30	IPRS meeting1
	17:00-20:00	Council meeting2
10월 7일 (금)	09:00	Council meeting3-IPRS meeting2
	12:00	Lunch
	13:30-16:00	· Guided city tour · Visit to the Croatian Parliament
	20:00	Gala dinner
10월 8일(토)	전일	Excursion-Plitvice National Park

□ 참가 보고

1. Welcome dinner

첫 번째 일정은 5일 저녁 8시에 시작된 Welcome dinner였다. 행사장소인 Arcotel Allegra Hotel 1층 부페에서 개최되었으며 Fausto Ramondelli 회장의 환영인사가 있는 뒤에 바로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된 중앙위원회에는 17개국에서 65인의 속기사가 참여하였는데 주로 유럽 쪽 국가가 대부분이고 아시아 참가국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뿐이었다. 그래서인지 Fausto 회장이 직접 우리 테이블로 와서 환영인사를 해 주었으며 우리는 터키 등 몇몇 나라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특히 중국 측 참가자들과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

총회가 있는 해에는 평균적으로 600여 명 이상이 참여하여 경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대규모로 행사가 진행되지만 중앙위원회만 열리는 올해에는 참여 인원도 60여 명으로 소규모이고 행사도 전반적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한국 대표단에게 환영인사를 하는 Fausto 회장)



(중국 대표단과 인사하는 이순영 이사장)

2. Council meeting

중앙위원회는 INTERSTENO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인데 이번 자그레브에서는 총 3차에 걸쳐 Council meeting이 개최되었으며 기본안건을 가지고 논의하다 결정이 안 나면 다음 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1차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명예회장이었던 Mr. Ihsan Yener와 또한 오랫동안 인터스테노에 많은 참여와 기여를 해 왔던 Mr. Gian Paolo Trivulzio 두 고인에 대한 추모목념이 먼저 진행되었다.



(추모 목념)



(Council meeting에 참석중인 이순영 이사장)

그 후에는 바로 Fausto회장의 개회사가 있는 후 특별한 인사말 없이 바로 Danny Devrient의 사회로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2016년도 Council Meeting Azenda는 아래 표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 2015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있었던 행사에 대한 결과 보고(Reflection on the congress2015 in Budapes)와 2. Congress activities, 3. Financial results, 4. Approval of minutes of the council meeting 2015 Budapest까지는 일반적인 사항들로서 집행부의 보고를 들은 후에 이에 대한 간략한 질문이 이어지고 이의가 없는 경우 바로 추인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16 INTERSTENO Council Meeting Azenda

1. Reflection on the congress2015 in Budapest
2. Congress activities
3. Financial results
4. Approval of minutes of the council meeting 2015 Budapest
5. Multilingual contest
6. Speech capturing
7. Real time
8. Note taking and summary reporting
9. Internet Contest 2017

일반적인 사항들이 통과되고 난 뒤부터는 2017년 인터스테노에서 개최하는 대회들의 세부사항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Multilingual contest는 참가자들이 최소한 2개 이상의 언어에 대하여 text를 만들어 내는 경연 대회인데 각국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모국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페널티를 줄어 줄 것과 유럽권에서는 유사한 계통의 언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언어로 인식할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최소한 2개국어 이상에 대하여 분당 120, 130, 140음절로 증가하는 속도에서 3분간의 구술을 포착해야 하며, 참가자를 기준으로 외국어에 대해서는 최대 50페널티, 모국어에 대해서는 최대 30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Real time에 대한 논의에서는 먼저 2015부다페스트에서 Real time의 진행을 맡았던 Linda Drake로부터 지난 대회를 치루면서 등급을 변경했었던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며 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등급을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오늘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 기존의 1분마다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2분마다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Real Time 경영대회에서 각국의 오류를 채정하는 기준이 약간은 상이하여 통일이 필요하다는 제안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으나 최종적인 결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속도로 10분 길이의 받아쓰기를 포착하는 정도만 결정하고 기타 사항들은 다음 회의로 결정을 보류하였다.

Speech capturing과 Note taking and summary reorting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존방식이 그대로 도입되었으나 Speech capturing은 15분 길이의 text를 캡처해서 옮기되 증가하는 속도에 따라 A, B, C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Note taking and summary reporting의 경우 각 섹션에서 요약에 허용되는 최대단어 수에 대한 결정은 보류되었다.

마지막 Internet Contest 2017은 전 세계에서 18개 언어로 15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준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다는 집행부의 각오와 2003년 200여명에서 시작한 대회가 이제 15회차를 맞이하며 이 대회가 그동안 전세계 청소년들의 키보드 활용 시 숙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 등 대회의 성과에 대한 토의들이 많이 나왔으며, 실시 일자를 4월 17일 ~ 5월 19일로 하자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각국의 시차 때문에 실시시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최종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현재 나온 안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위임되었다.

Council Meeting에서는 한국측은 인터스테노가 개최하는 다양한 경연대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주로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의 의견 표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다만 인터스테노에서 속기에 국한하지 않고 기록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기록기술의 속련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경연대회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3. IPRS meeting I·II

사회를 맡은 네덜란드의 Rian Schwarz-van Poppel의 개회 및 환영인사가 있는 후 크로아티아 속기협회 회장인 Kristina Zlodi가 Zagreb 시내에 대한 설명과 인사 및 가격 등을 묻는 크로아티아어를 알려주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Orientation을 간단히 해 주었는데 역시 아시아권 참가자들이 크로아티아어를 가장 어려워했다. 그러나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어서 첫 번째 주제인 Reporting questions in the Sicilian parliament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Fabrizio Verruso가 발표를 시작하였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의회, 우리로 치면 어느 지역의 지방의회인데 이 시칠리아의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전반적인 내용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으로서 정부를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여 질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 내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기록의 중요성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속기사의 역할도 약간 거론되었다.

이번 주제는 속기라는 기록 방식 내지는 기록물 생산 과정보다는 기록 자체의 중요성과 이용에 방점이 두어졌으며 이런 주제 발표를 통해 인터스테노가 단지 속기라는 기록방법만이 아닌 기록 내지는 기록물의 의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는 두 번째 발표자인 네덜란드의 Henny van der Meijden / Mariëtte Tesselhof로부터 'Touch typing for better spelling and creative writing'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네덜란드 동부의 20개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20143명을 대상으로 Touch typing과 올바른 철자법 구사와 창의적인 글쓰기와의 연관관계에 대해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실험한 상당히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된 주제 발표였는데, 결론적으로 원활한 Touch typing은 올바른 철자법의 구사뿐만 아니라 그림과 몇 개의 제시어를 주고 이루어진 창의적인 글쓰기에서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보고였으며 학교에서 체계적인 Touch

typing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Touch typing만을 교육하는 과정은 사실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상당한 정도의 Touch typing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경우라도 컴퓨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원활한 Touch typing을 배우지 못하는 학생 또 Touch typing을 한다 하더라도 10개 손가락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Touch typing을 할 수 있는 공식 교육 과정이 도입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IPRS Meeting 주제 발표 중)

다음날 이어진 IPRS meeting II에서는 'The production of parliamentary reports, a research about the methods used in different parliaments'라는 주제로 네덜란드의 Marlene Rijkse가 장시간에 걸쳐서 발표를 해 나갔다.

'The production of parliamentary reports'라는 주제 자체가 무척이나 마음에 와 닿았다. 한국 국회도 많은 회의록을 생산하고 있지만 사실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이 많기 때문이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25개국에 미리 질문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회답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말한 그대로의 회의록을 생산하는 국가와 요약보고서를 생산하는 국가'라는 챕터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속기사의 부족으로 말한 그대로의 회의록을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체로 요약본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음성녹음을 회의록 생산 시에 보완하여 이용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수필속기(Pen Shorthand)가 사용되고 있는 국가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주요한 회의에만 수필속기사를 배석하게 하였다. 특이한 점은 카메룬 의회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 2개 국어로 된 회의록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인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회의 다음날 오전 6시 혹은 24시간 이내에 회의록을 발간하는 것과는 달리 회의록 공표에 타 국가의 두 배의 시간을 소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성인식을 도입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으나 다양한 억양, 발음속도, 방언, 음성 인식 자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가는 일

본 외에는 아직까지 매우 한정적으로 도입 및 이용하고 있는 정도였는데 발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많은 발전을 통한 전반적인 활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나머지 내용은 교대시간, 1차 본회의에 투입되는 전체 인원 수 등에 대한 비교 등이 있었는데 타 국가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음 두 번째로 핀란드의 Niklas Varisto와 Kalle Niemimaa팀이 'A survey about audio recording systems in the parliaments of Europe'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핀란드 의회는 속기사가 40여명 내외로 상당히 작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녹음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녹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여타 국가의 녹음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에 본인의 언어에 적합하고 필요한 기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보고였으며 처음 주제를 들었을 때 생각했던 음성인식을 도입하는 과정은 아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었다.

4. 크로아티아의회 방문 및 자그레브시 관광

크로아티아의회는 자그레브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그레브 자체가 워낙 작은 도시여서 행사가 개최되는 아르코텔에서 트램을 타고 두 정거장 이동한 곳에 위치해 있다.

크로아티아의회는 그냥 봐서는 의회인지 잘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소박한 외형이었으며 내부도 그다지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우리는 본회의장을 참관하였는데 역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의석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전자화되어 있었지만 각각의 자리에 명패는 없이 여타 유럽 국가 의회가 지정된 자석이 없이 오는 순서대로 앉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었다. 층고는 낮았지만 그래도 의원 아닌 방청객들을 위해서 2층에 3면으로 방청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크로아티아의회 앞)



(본회의장 의원석에 착석한 이순영 이사장)

크로아티아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4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 수는 선거구가 그때그때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2016년 현재는 151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의원 1/5의 제안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하여야 하고 의원 2/3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결정된다.

크로아티아의회 역시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발간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회의록이 보관되어 있는 서고동으로 이동하여 회의록의 보관 상태와 전시된 수필속기 표본과 최초의 회의록 등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속기와 관련된 것들이 비교적 잘 보관되고 전시되어 있었지만 6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일반 가이드 1인의 설명을 들어야 되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많이 아쉬웠다.



(회의록)



(회의록을 보관 중인 서고)

의회 참관 이후에는 자르레브 시내 관광이 진행되었는데 걸어서 모든 시내를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하고 곳곳에 유적과 공원들이 있어서 여유 있게 둘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 크로아티아속기협회 방문

자그레브 시내 투어를 마치고 마지막 일정은 크로아티아속기협회를 방문하는 순서였는데 크로아티아속기협회는 자그레브 시내의 중심가인 반엘라치치광장 바로 건너편에 있었고 규모도 상당히 있어 보였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속기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속기 관련 인원은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중등부 성인부를 구분하여 레슨이 이루어질 정도로 배우는 사람이 많고 국내 대회가 자주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주변 국제대회에도 출전하여 수상한 적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크로아티아에서 속기는 188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무렵에는 크로아티아어로 된 속기 자체가 없어서 처음에는 체코나 슬로바키아 등에서 독일어로 된 속기를 배워 와서 속기를 하였다고 한

다. 이는 한국이 일제 강점기 시에 한국어로 된 속기법이 없어서 일본어 속기를 배워서 속기를 하다 1945년 무렵부터 한국어로 된 속기가 개발되기 시작하여 1948년 제헌 국회 시부터는 한국어 속기사에 의해 속기가 가능하게 된 것과 상당히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6. 결론

인터스테노는 문자와 단어라고 표현되는 text에 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단체이다. 수필이든 기계든 속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text를 구현하는 것은 인터스테노에서 추구하는 언어를 활자화하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인터스테노에서 키보드 입력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방식은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유용한 기본능력이라는 인식과 문서 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최근의 시대적 요구뿐만 아니라 컴퓨터 및 테블릿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빠르게 text를 구사하는 능력이 단지 언어를 문자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는데, 즉 창의적인 작문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입증하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인터스테노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배양을 위한 혹은 능력이 도움에도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이러한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Speech capturing, Text production, Realtime Speech Capturing, Text Correction, Note taking & reporting, professional word processing, Audio transcription이라는 다양한 방식의 대회를 개최하여 사람들의 Text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대한속기협회도 이러한 문화 확산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대한속기협회에서는,

1. 기록수단의 다변화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2. 인터스테노에서 생산되는 각종 보고서의 축적 및 자료화,
3. IPRS와의 집중적인 교류를 통하여 각국의 회의록 생산 체계 파악 등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 계획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